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활성화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월 13일 총선을 통해 20대 국회를 4년 동안 이끌어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다. 국회의원은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특혜를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갑이다. 갑질을 한다고 비난받는 대기업 회장이나 임원도 국회의원 앞에서는 영원한 ‘을’이다. 직접선거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들의 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향후 4년간 국회는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16년만의 여소야대니 총선 후 권력재편이니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만의 리그이자 밥그릇싸움이다. 서민들에게는 누가 권력을 잡고 당대표가 되든 먹거리를 해결해주고 살기 편안하게 해 주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다. 실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든 야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들을 괴롭히지만 않으면 훌륭한 정치인이다.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리더십 문제, 국회의 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웠고 사회적 갈등은 첨예화되었다. 물론 세계경제의 침체, 예상치 못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이 정부의 발목을 잡기도 하였다.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은 가계부채의 급증과 함께 이미 효과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일자리는 부족하고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가계부채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침체되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매우 어둡다.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여전히 공공기관을 지배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3년 295개에서 2015년 316개로 늘어났으며 공공기관의 정원도 증가되어 공공부문은 더 비대화되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인원만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금융규제와 관치금융은 시장 중심의 금융산업 발전을 여전히 저해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없다. 규제개혁은 말만 무성하지 현장에서 전혀 체감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제 박근혜정부도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고 20대 국회도 새로이 출범한다. 국민들의 좌절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대립시켜 정쟁의 수단으

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저소득층 국민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경제는 투자부진과 산업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까지 총체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모든 부문에서 갈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인심은 공간에서 나기 때문이다. 역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너무 확대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적절한 재분배제도와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통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해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 투자환경이 불안정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면 기업들은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기업들이 동일한 품질의 값싼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생산에 사용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중간재 생산 기업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고 기업투자의 낙수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낙수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또한 해외보다 나은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이 국내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확대 없이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한시적 일자리는 재정적자만 심화시키고 궁극적인 부담은 국민들에게 세금이나 부채로 전가된다.

20대 국회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와 합심하여 시장 지향적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승자독식, 관피아·정피아, 부정부패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올바른 시장질서의 정립 없이 해결될 수 없다.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법치주의의 강화도 필요하다.

남은 2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성공을 거두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20대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국정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생각해야 하며 국회의원들도 정파적 이해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